

평창군, 신속한 민원 처리

건축·산지 허가 민·관 간담회 개최

평창군은 28일 관내 건축사 및 측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절차를 위한 협력 방안과 민간과의 원활한 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허가 실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원서류 작성 단계부터 복구 설계 및 준공검사 신청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건축과 산림’ 부문 간 정보 공유를 주제로 건축팀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보완이 요구되는 ‘품질관리서’ 및 ‘품질인정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건축 관계자의 혼선을 줄이고, 품질이 확보된 건축 자재의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민원 접수 시 불필요한 서류 보완을 최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산림과 개발행위 부문에서는 서류 및 관련 법령 검토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현황 실측도와 배치도 등 도면 표기 방법을 일원화하고,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현황도로 여부, 부지 경계 표시, 시설계획에 따른 구조물 표기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민원서류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속초시, 콤팩트시티 워크숍

‘그랜드 오픈’ 개최

속초시는 10월 27·28일 이틀간 시청 디지털상황실, 센텀마크, 조양동 새마을 일원에서 ‘2025년 제2차 콤팩트시티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속초형 콤팩트시티 기본 방향과 실행 전략 등을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콤팩트시티 도시 디자인 사례와 대중교통 시스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속초의 도시 구조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기본 방향과 실행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 차인 27일에는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전문가와 시청 소관부서 과·팀장급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신디자인권 건축사무소 선정엽 대표의 ‘도시 및 건축디자인의 역할과 필요성’, 현대모터그룹 김수영 상무의 ‘대중교통 시스템의 적용과 사례’, 강원연구원 추용욱 연구위원의 ‘콤팩트시티 단계적 추진 방향’ 발표 후, 영국CNP 조돈철 부사장과 강원연구원 장진영 부연구위원이 주재한 종합토론으로 마무리했다.

이어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문종현 센텀마크 입주자대표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과 콤팩트시티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2일 차인 28일에는 구) 조양교회를 비롯한 새마을 일원을 답사하며, 최근 관광에 관심이 높아지는 지역의 개선과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간담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개선 실적 달성

많이 건의하고, 잘 해결하는 ‘초협력’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최승재, 이하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일선 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전달하고, 옴부즈만이 이를 해결하는 ‘선순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기관은 10월 28일(화) 오전 10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체결된 규제혁신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양 기관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중앙부처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옴부즈만에 건의했으며, 옴부즈만이 상반기에 발표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 결과에서 전국 평균(27.4%)을 크게 웃도는 전국 최고의 개선율(42%)*을 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건희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장, 이주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강원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병진 과장, 메인비즈협회 강원연합회 권혁중 수석부회장,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조영희 원장, 중소기업중앙회 박철 강원지역 본부장, 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전수원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제도 개선 ▲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인증 절차 간소화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동 범위 확대 ▲ 데이터센터 건축 관련 규제 완화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용처 확대 등 7건의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서건희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의 협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화천군 평생학습축제 배움으로 깨닫는 즐거움



화천군이 운영하는 ‘2025 화천군 평생학습 축제’가 화천의 늦가을을 배움의 즐거움으로 채우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 26일 서화산 다목적광장에서 평생학습축제 전시회 개막식

을 개최했다.

전시회에서는 동아리 회원들의 회화, 분재, 공예, 서예, 캘리그래피, 시화, 도자기 등의 작품들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내달 1~2일 화천문화원에서는 평생학습 예술제가 열려 흥겨운 농악 공연과 성인문화 시상식, 평생학습강좌 공연 등이 펼쳐진다.

화천군은 11월2일 오후 6시10분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유성호 서울대의대 법의학 교수를 초청해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다’라는 주제의 특별강연도 개최한다.

김민석 기자

횡성군, 강원테크노파크 미래차 산업 육성

횡성군은 28일 횡성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은 ‘미래차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현판식을 개최하고 전국적인 미래차 산업 인재 양성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지정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 사례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최초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으로, 강원특별자치와 횡성군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주도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테크노파크, 자동차정비사업조합, 한라대학교 등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차세대 정비기술 인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최근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정비 기술의 고도화가 요구되며 첨단 안전기술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

고 있다. 이에 횡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전기 관련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현장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인재를 키울 계획이다.

군은 2022년 지방주도형 수요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약 20억 원 규모의 이모빌리티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강원테크노파크에 운영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이모빌리티 일자리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며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미래차 시대에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거점이 바로 횡성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동해문화관광재단, ‘도보관광 야행(夜行)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간: 11월부터 매주 토요일, 총 5회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지원사업 통해 묵호 관광활성화 박차

동해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정연수, 이하 재단)이 11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동해시 묵호 지역에서 야간 도보관광을 즐기는 ‘묵호 라면 야행’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MZ세대를 중심으로 뚜벅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묵호 지역의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동해시 대표 지역생산물인 묵호태를 생산하는 덕장마을 지역을 알리고자 준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해랑전망대를 출발해 도깨비굴 스카이벨리, 등대 산책길, 바람의 언덕, 논골담길, 덕장마을, 문화팩토리덕장카페를 거쳐 묵호항과 마을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동해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묵호의 역사와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지막 도착지인 문화팩토리



덕장에서는 묵호태를 활용한 ‘묵호태 라면’을 시식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도

선사한다.

참가 신청은 10월 27일부터 동해 DMO 홈페이지(www.dhdmno.com)에서 가능하며, 회당 참가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된다.

참가비는 1인 10,000원이며, 참가자에게는 도깨비굴스카이벨리 입장료와 라면 키트가 제공된다.

재단 관계자는 “묵호의 밤바다와 조용한 도시 야경을 느끼며 도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 상권과 연계한 주야간 도보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지난 5월부터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뚜벅아, 라면 먹고 갈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묵호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 연계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기자

홍천군 “서울이 반한 청정 홍천의 맛”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10월 12일과 2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부제: 두 발로 그리는 낭만산책)에 참가해, 관내 우수 농가 7곳이 직접 생산한 홍천 농특산물을 선보이며 서울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가 주최한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행사로, 피크닉존, 거리 공연, 푸드트럭, 플래시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연간 15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시민 축제다. 홍천군은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도심 소비자 점점 강화를 목표로, 서울시 상설 행사 연계 프로그램인 ‘서울장터(Seoul Local Market)’에 참여해 홍천을 대표하는 청정 농특산물을 도심 한복판에서 직접 홍보했다.

이번 행사에는 △바농(갯떡) △달스팜(오미자청) △베이스내촌(홍천강 소주) △삼봉초콜릿(빈투바 초콜릿) △티앤라이프(허브차) △밤바치농장(까치돌배주) △별파향과하루건과(강정) 등 7개 대표 농가가 참여해 총 1,8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도심 소비자들에게 홍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홍천군 유통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홍천 농특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을 서울 시민들에게 직접 알릴 뜻깊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통해 지역 농가의 자생력과 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 소비자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